

# 광주 산단도로 포트홀 보수중...폭설후 급증

## 지름 10~30cm 구멍 '도로위 지뢰'...삽 들고 메꾸

## 지난해 하루 44건 발생...올해 폭설후 하루 79건 보수

“눈 오고 나니 곳곳이 포트홀(도로면 패임) 지뢰네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진곡 산단 도로 일대에선 도로면 패임 긴급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내린 눈이 녹아 도로 홈에 스며들어 수축·팽창을 반복, 곳곳에 포트홀을 만들어 낸 탓이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최고 적설량 4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포트홀은 도로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산단을 자주 오가는 대형 화

물차량 바퀴가 도로 노면과 자주 마찰하면서 곳곳에 크고작은 포트홀이 눈에 띄었다.  
한 도로에선 지름 10~30cm가량 되는 구멍 10여 개가 1~2m 간격을 두고 잇따라 있었다. 점점 차, 1차선 도로를 서행하던 작업 차량은 '포트홀 발생'을 알리는 신호로 등을 켜고 뒤따르던 대형 다목적차량도 멈춰선 뒤 보수 공사 구간임을 알리는 경보음을 크게 울렸다. '뽕뽕뽕' 경보음과 함께 작업 차량에선 형광색 옷을 입은 작업자 4명이 삽과 상온 아스콘(응급 도로 보수제) 포대를 들

고 차량에서 내렸다.  
한 작업자가 포트홀에 끼인 쓰레기·먼지 등 이물질들을 걷어내는 사이, 형광봉을 든 신호수는 시속 80km로 달리는 화물차들이 작업 구간에서 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작업자들은 움푹 패인 구멍에 자루째 아스콘을 쏟아부었다. 삽이나 발바닥으로 구멍 구석구석 아스콘을 다져 넣은 뒤 표면 평탄화로 보수 작업을 마쳤다.  
시는 이날부터 민간 업체와 9개 팀(21명 규모)을 꾸려 폭 20m 이상 도로 407곳(길이 599km)에서 포트홀 점검·보수 공사를 벌인다. 겨울철 해빙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눈이 내린 며칠 새 포트홀이 많이

생겨나 주행 중 2차 사고나 타이어 파손이 우려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포트홀 보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만 광주 시 전역에선 보수한 포트홀은 316곳이다. 하루 평균 79건을 보수한 셈이다. 지난해 1만6166건의 포트홀이 발생, 하루 평균 44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폭설기간에 얼마나 많은 포트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이후 한 차례 더 기록적 폭설이 내려 포트홀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트홀 보수공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일상 기자

#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탄력

##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원 확보

광주시와 고흥읍,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노력이 가시화됐다.  
고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에 채택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및 직결된 만큼 고흥군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

력을 펼쳤다.  
고흥군은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광주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차량으로 2시간가량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고흥군 변화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를 모델로 하는 국내 유일의 우주 과학 분야 교육·체험 시설 구축 사업으로 기본조사 용역비 5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됐다.  
/박종배 기자

# 강 시장,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 "물관리 지원 강화" 건의

강기정 시장은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처한 심각한 물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각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는 현재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한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와 이율 등의 결정은 지방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고금리 시대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잇단 폭설에 광주시·5개 구 제설제 비축량 급감...추가 확보

## 울겨울 두 차례 폭설로 6266톤 소진...잔량 1742톤

올 겨울을 잦은 폭설로 광주 지역 제설제 비축량이 급감, 추가 확보에 나선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광주시·5개 자치구의 제설제 잔량은 1742t이다. 종류별로는 소금 1364t, 친환경 제설제 219t, 염화칼슘 159t 등이다.  
올 겨울을 앞두고 시·자치구가 확보한 제설제는 총 8118t이었다. 그러나 이날 17일부터 19일까지, 22일부

터 24일까지 2차례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제 6266t을 소진했다. 올 겨울 확보량 대비 잔량은 21.45%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3일 광주의 신적설량(하루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은 32.9cm를 기록,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17년 만의 최대 폭설이었다.  
잇단 폭설로 제설 빈도·구간이 크게 늘었고, 이날 오전 간선도로 등지의 제설이 본격화되면서 염화칼슘은

소진 직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화칼슘은 환경오염 우려는 있지만 발열량이 높아 눈 녹이는 속도가 빨라 주요 도로 긴급 제설에 주로 쓰인다.  
시는 조만간 추가 발주를 통해 제설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중국산 염화칼슘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28일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29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조일상 기자

# "폭설피해 신속 복구...2차 피해 예방 총력"

## 김영록 지사 "철저한 조사·주민불편 해소" 강조

김영록 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대설(폭설)·한파 피해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 누락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지역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폭포시 등 21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지역별로 장성 36.1cm를 최대로 화순 30.0cm, 담양 25.9cm 등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 기간 기온은 장성 영하 17도, 구례 영하 15도 등 한파까지 몰아쳤다.  
폭설·한파에 따른 피해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농업 시설하우스 84농가 137동, 축사 13농가 35동, 육상 양식장 2여가 9동이 파손된 것

로 잠정 집계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회의에서 "제설이 완료됐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교량, 고갯길 등 잔설 정리를 비롯, 도로 노면의 작은 구멍(포트홀)을 신속히 긴급보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에 대해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므로 취약계층 인부를 살펴보고, 통화가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종배 기자

# 폭설에 고립·방치된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광주에 사흘간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고립된 차량들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폐쇄회로(CC)TV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광주에 역대 두 번째인 신적설량(32.9cm)과 역대 세 번째 최심 적설량(40cm)을 기록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지난 22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쌓이고 도로가 결빙되면서 퇴근길에 나섰던 차량들이 곳곳에서 고립됐다.  
23일 오전 출근길 차량 운전자들도 눈길을 뚫지 못해 차량을 도로변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두고 빠져 나왔다.  
폭설에 고립된 채 방치된 차량들은 24일 오후까지 대부분 소유자들이 이동 조치했다.  
/권형안 기자

순천시 공고 제2022 - 2874호

## 순천시 교통관련 3건 기본계획(안) 열람 공고

순천시는 전남동부권의 교통의 요충지로 도로교통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수립한 3건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 순 천 시 장

1. 기본계획 개요  
가.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나. 순천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다. 순천시 지방보행교통 개선계획

2. 주요내용  
가.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1) 목표연도 : 2022년 ~ 2026년(5년)  
2) 관련법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3) 수립목적  
- 순천시의 대중교통 발전방향 및 대중교통 이동편의 확충  
-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수단분담율 제고  
-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법정계획 수립 이행  
3) 수립내용  
- 대중교통현황, 문제점 -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 대중교통수단 개선 및 확충 - 대중교통시설의 개선확충  
- 대중교통운영체계개선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서비스개선방안

나. 순천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 목표연도 : 2022년 ~ 2026년(5년)  
2)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 수립목적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12. 21 ~ 2023. 1. 4.(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순천시 교통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과(061-749-5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전기사업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2”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 내용  
1) 사업명칭 : (유)예정, (유)경아, (유)운승, 은지, 규철, 월평 1호기, 월평 2호기, 월평 3호기, 월평 4호기, 월평 5호기  
2) 신청자 : (유)예정태양광발전소 대표 정경애, (유)경아태양광발전소 대표 정경아, (유)운승태양광발전소 대표 정종민, 정은지, 김규철, 전청아 2개소  
전충호, 박평순 2개소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1  
4) 사업규모 : 토지면적 - 총 14,801㎡, 용량 - 99kW×10개소  
사용면적 - 1개소당 464㎡ 10개소

2. 사업기간 : 2023년 03월부터 20년간 운영  
3. 의견제출 : 전화 (062-575-4745), 이메일 (sb14745@hanmail.net)  
4. 기 간 : 2022. 12. 27. ~ 2023. 01. 10 (2주간)

## 겨울꽃축제

1004섬, 에기동백에 물들다

22. 12. 9. ~ 23. 1. 31.

신안군 압해읍 분재정원